제1장 총 설

1998년중 우리 經濟는 전년말 발생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연초 이래 상당기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國際通貨基金(IMF)과의 합의하에 외화유동성 확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外換·金融市場이 안정을 되찾고 뒤이어 實物經濟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위기상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실물경제 동향

연중 실물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한 구조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經濟成長率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失業이 크게 늘어났다. 物價도 3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연평균 상승률은 전년수준을 상회하였다. 다만 經常收支는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급감에 주로 기인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은 외환위기의 충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전년의 5.0%에서 -5.8%로 크게 낮아졌다. 분기별로는 1·4분기중 -3.6%를 기록한 데 이어 2·4 3·4분기에는 각각 -7% 수준으로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4·4분기에는 商品輸出(실질)이 착실한 증가를 지속하고 內需不振이 부분적으로 완화된 데 힘입어 마이너스 폭이 5.3%로 축소되었다.

수요부문별로는 輸出(실질)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消費支出은

임금 삭감,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 장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固定投資도 내수침체,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 모두가 매우 부진하였다. 특히 연중에는 재고가 유례 없이 크게 줄어들어 在庫變動이 GDP 成長率을 5.6%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소비 및 투자의 부진을 반영하여 輸入도 대폭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대다수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건설업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침체가 현저하였다.

雇傭事情은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기회 감소,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력감축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연평균 就業者가 전년대비 112만 2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성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인력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失業者가 전년의 55만 6천명에서 146만 3천명으로 급증하고 失業率도 2.6%에서 6.8%로 대폭 상승하였다. 賃金은 경기침체,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전산업 명목임금이 전년에 비해 2.5% 줄어들어 1970년 임금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소비자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연중 9.3% 감소하였다.

物價는 1998년중 消費者物價와 生産者物價가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7.5%, 12.2%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기간별로는 외환위기 직후 급속한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1 2월중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나 3월 들어 환율 및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연말월 기준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전년의 6.6%에서 4.0%로, 生産者物價 상승률은 9.6%에서 3.6%로 각각 낮아졌다.

不動産價格은 주택 및 토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2·4분기까지는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전년말 이후의 하락세가 확대되었으나 3·4분기부터는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 금리의 하향 안정화 등으로 다소 안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經常收支는 상품수지가 거액의 흑자를 기록하고 서비스 및 경상이전 수지도 개선됨으로써 전년의 82억달러 적자에서 경상 GDP의 12%를 상회하는 400억달러의 대폭 흑자로 반전하였다. 商品收支는 수출이 소폭 줄어들었으나 수입이 훨씬 크게 감소함에 따라 412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輸出(통관기준)은 주요 수출시장인 동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 수출단가의 큰 폭 하락 등으로 전년의 5.0% 증가에서 2.8% 감소로 반전하였다. 輸入(통관기준)은 내수위축으로 수입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가격도 급락함으로써 감소율이 전년의 3.8%에서 35.5%로 대폭 확대되었다. 한편 전년중 32억달러 적자였던 서비스收支는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연중 4억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經常移轉收支도 해외교포의 국내송금 확대 등으로 흑자폭이 전년의 7억달러에서 33억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所得收支는 대외이자지급이 크게 늘어나 적자규모가 전년의 2배 수준인 48억달러로 확대되었다.

資本收支는 무역관련신용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의 13억달러 유입초에서 40억달러 유출초로 바뀌었다.

외환 · 금융시장 동향

外換 · 金融市場은 2월까지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졌으나 3월 이후에는 환율과 금리가 점차 하락하는 등 안정을 되찾는 움직임을 보였다.

外換市場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자금 도입,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供給優位가 이어졌다. 이와 같이 外換需給事情이 호전됨에 따라 1 2월중 1,600 1,7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던 원貨의 對美달러 換率(종가기준)이 3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여 연말에는 전년말대비 40.8% 절상된 1,204원까지 낮아졌다. 또한 1997년말 89억달러에 불과했던 可用外換保有額이 1998년말에는 485억달러로 늘어났으며 居住者外貨預金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외환시장의 안정에 힘입어 12월에는 IMF 지원자금중 최초 만기도래분 28억달러를 전액 상환하였다.

金融市場도 연초에는 불안하였으나 2 · 4분기 이후에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점차 정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외환위기 발생 이후 IMF와의 합의에 따른 고금리정책으로 30% 내외에 달하였던 주요 市場金利는 한국은행이 公開市場操作金利를 계속 인하함에 따라 연말에는 콜금리가 6%대, 企業어음(CP) 및 회사채유통수익률이 8%대로 각각 낮아졌으며 金融機關 與受信金利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金融機關 受信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예금자보호제도 변경, 市場金利 속락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간 資金移動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관별로는 預金銀行 受信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착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投資信託會社 受信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공사채형수익증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대폭 확대되었다. 반면 金錢信託 受信은 호조를 보였던 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장기화되고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인상된 데다 5개 은행 퇴출 이후 金錢信託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金融機關 與信은 기업의 높은 信用危險, 금융기관의 國際決濟銀行(BIS) 基準自己資本比率 유지 부담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 투자신탁회사 등의 회사채 및 CP 매입을 통한 기업자금공급은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회사채 및 CP 발행이 용이하였던 優良大企業은 자금사정이 원활했던 반면 소요자금을 주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中小企業들은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4·4분기 들어서는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로 돌아서고 금융기관의 대기업 발행 회사채 및 CP 보유 제한조치 등의 영향으로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업의 회사채 및 CP 발행도 점차 늘어나는 등 信用梗塞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債券市場에서는 회사채,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의 발행물량이 급증하였으며 機關投資家의 채권수요가 크게 확대된 데 힘입어 流通市場에서의 거래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市場金利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株式市場은 1 2월중 일시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3·4분기까지 대체로 침체국면을 지속한 후 10월부터 금리 하락,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내·외국인 주식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지수가 오름세로 돌아섰다. 1998년말 종합주가지수는 562.5로 전년말(376.3)보다 49.5% 올랐으며 특히 10월 이후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81.3%에 달하였다.

한편 연중에는 금융권간 資金移動의 확대로 通貨總量指標간의 증가율 괴리현상이 현저하였다. 먼저 전년 12월중 21.1%에 달하였던 M2 증가율(평잔기준)은 연초 이래 하락세를 보여 4월중 13.1%까지 낮아졌으나 5월부터는 金錢信託의 일부가 은행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 12월중에는 21.5%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은행의 전체 예수금을 포괄하는 MCT^{+}(MCT+표지어음매출+환매조건부채권매도+금융채)는 증가율이 전년 12월의 18.5%에서 1998년 12월 0.3%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금전신탁의 상당부분이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으로 이동한 데다 은행이 자금사정 호조로 讓渡性預金證書(CD)

<표 Ⅰ-1> 주요 국내경제지표[1] 추이

		1994	1995	1996	1997	1998[7]		
						연 간	상반기	하반기
국 내 총 생 산	증가율,%	8.3	8.9	6.8	5.0	-5.8	-5.5	-6.2
(제 조 업)	〃	10.8	11.3	6.8	6.6	-7.2	-7.6	-6.8
(건 설 업)	〃	4.6	8.8	6.9	1.4	-9.0	-5.4	-11.8
(도소매음식숙박업)	〃	9.8	8.4	7.1	4.0	-7.7	-8.8	-6.6
(민 간 소 비)	〃	8.2	9.6	7.1	3.5	-9.6	-10.6	-8.7
(고 정 투 자)	〃	10.7	11.9	7.3	-2.2	-21.1	-22.3	-20.0
(재 고 증 가)[2]	%p	1.2	-0.1	0.6	-2.0	-5.6	-7.8	-3.7
(재화와서비스의수출)	증가율,%	16.1	24.6	11.2	21.4	13.3	18.9	8.4
(재화와서비스의수입)	〃	21.6	22.4	14.2	3.2	-22.0	-26.3	-17.6
실 업 률[3]	%	2.4	2.0	2.0	2.6	6.8	5.8	8.2
소 비 자 물 가	상승률,%	5.6	4.7	4.9	6.6	4.0	3.3	0.6
생 산 자 물 가	〃	4.0	3.6	3.7	9.6	3.6	5.5	-1.8
경 상 수 지	억달러	-38.7	-85.1	-230.0	-81.7	400.4	217.4	183.0
상 품 수 지	〃	-28.6	-44.4	-149.6	-31.8	411.6	210.0	201.6
수 출[4]	〃	960.1	1,250.6	1,297.2	1,361.6	1,323.1	671.1	652.0
		(16.8)	(30.3)	(3.7)	(5.0)	(-2.8)	(2.8)	(-8.0)
수 입[4]	〃	1,023.5	1,351.2	1,503.4	1,446.2	932.8	472.0	460.9
		(22.1)	(32.0)	(11.3)	(-3.8)	(-35.5)	(-36.6)	(-34.4)
서 비 스 수 지	〃	-18.0	-29.8	-61.8	-32.0	3.8	6.6	-2.8
소 득 수 지	〃	-4.9	-13.0	-18.1	-24.5	-48.1	-19.7	-28.4
경상이전수지	〃	12.8	2.2	-0.5	6.7	33.0	20.4	12.6
對美달러환율[5]	원	788.5	775.7	844.9	1,695.0	1,204.0	1,373.0	1,204.0
		(2.4)	(1.7)	(-8.2)	(-50.2)	(40.8)	(23.5)	(14.0)
M2[6]	%	17.6	13.7	17.8	21.1	21.5	18.1	21.5
MCT[6]	〃	23.6	22.0	18.6	14.7	2.6	8.2	2.6
MCT+[6]	〃	··	··	··	18.5	0.3	10.4	0.3
M3[6]	〃	23.8	18.8	17.1	15.9	12.4	14.2	12.4
콜금리(기간평균)	%	12.3	12.4	12.4	13.2	15.0	21.3	8.7
회사채수익률(기간평균)	〃	12.9	13.8	11.9	13.4	15.1	19.1	11.1

주 :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단 물가상승률은 기말월의 전기말월대비
2)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3) 상·하반기는 계절변동조정치
4) 통관기준, ( )내는 증가율
5) 기말종가기준, ( )내는 전기말대비 절상·절하(-)율
6) 기말월평잔의 전년동기말월대비 증가율
7) 국민계정 및 국제수지는 잠정치

還買條件附債券(RP) 등 고금리 단기시장성 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을 억제한 데에 크게 기인하였다. 한편 제2금융권 예수금까지 포괄하는 가장 광의의 지표인 總流動性(M3)은 은행대출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회사채 및 CP 매입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로 증가율이 12월 평잔기준으로 전년의 15.9%에서 12.4%로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연중의 주요 경제정책

經濟政策은 IMF와의 합의하에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통한 外換市場의 조기 安定과 경제 각 부문의 강도 높은 構造調整 推進에 역점을 두고 운용하였다.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2 · 4분기 이후에는 實物經濟의 과도한 위축 및 信用梗塞 심화에 대처하여 통화 · 재정 정책을 완화기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대책도 다각적으로 강구하였다.

韓國銀行은 외환위기 직후 公開市場操作金利를 사상 최고 수준인 35%까지 인상한 데 이어 1998년초에도 20 30%대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高金利政策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자본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확보, 환율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으나 實物經濟의 과도한 위축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 · 4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公開市場操作金利를 1998년말 6% 수준까지 꾸준히 인하하였고 그 결과 연말경에는 시장금리는 물론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通貨運用에 있어서는 物價 및 外換市場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金融市場 및 實物經濟 상황에 따라 시중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중 본원통화는 IMF와 합의한 한도내에서 공급되었으며 M3 증가율(평잔기준)은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韓國銀行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經濟構造調整의 추진과정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먼저 1월중 예금대지급 및 제일 · 서울은행 출자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된 預金保險基金債券 6조 5천억원을 인수하였으며 9월에는 제일은행에 대한 特別貸出

金 1조원의 만기를 연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總額貸出限度를 3월 및 9월에 각각 1조원 및 2조원 증액하여 7조 6천억원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總額限度 貸出金利 인하 및 配定方式 변경 등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 유인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에 대한 輸出入金融의 공급 확대를 위해 貿易金融 融資限度 및 融資比率 규제를 폐지하고 한국은행 外貨資金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더욱 활성화하고 通貨政策手段을 정비하는 등 通貨政策 運用與件을 개선하는 데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종래 국채 및 정부보증채로 한정되어 있던 RP 거래 대상증권에 通貨安定證券을 추가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필요지급준비금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인 現金保有認許率을 상향 조정하여 은행의 자금 및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與信禁止部門 및 擔保取得制限制度를 전면 폐지하는 등 금융기관 여신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연중에는 財政赤字 보전을 위한 國債의 발행이 크게 늘어났으며 발행방식도 종래의 한국은행 인수 또는 명목상 시장발행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전액 實勢金利에 의한 市場發行方式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국채물량 증대 및 발행방식 개선은 國債金利의 指標金利로서의 역할 확립, 국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하여 債券市場의 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通貨政策의 수행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된 總額貸出限度 확대 및 同 대출금리 인하는 再割引制度 본연의 流動性 調節機能과 再割引金利의 公示機能 활용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급된 거액의 過剩流動性을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RP를 통해 흡수함에 따라 本源通貨 供給構造의 경직성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향후 通貨管理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한국은행법에 의해 物價安定目標制가 도입됨에 따라 韓國銀行은 9월에 처음으로 연간 物價安定目標를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9±1%로 설정 · 발표하였다. 이 목표는 정부 · 한국은행 · IMF간에 합의된 정책운용기조, 경제전망 등을 반영하여 중심선을 연평균 9%로 하되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가능성, 통화신용정책 파급효과의 가변성 등을 고려하여

상하 1%포인트의 변동폭을 둔 것이다. 연중 실제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7.5%로 물가안정목표 하한선을 밑돌았는데 이는 2·4분기 이후 통화정책기조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환율 임금 등 비용요인들이 목표설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 기인하였다.

外換政策에 있어서는 외화유동성의 조기 확보 및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실시되었다. 政府는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金融機關 短期外債의 滿期延長을 추진하여 217억달러의 短期債務를 1 3년 만기 장기채무로 전환하였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총 41억달러의 外貨表示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을 발행하였다. 또한 연중에는 IMF 등 國際金融機構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350억달러중 126억달러를 계획대로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연말까지 유입된 국제금융기구 지원자금은 총 287억달러에 달하였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말 債券市場을 개방한 데 이어 연중에는 株式 및 短期資金市場을 전면 개방하는 한편 외국인에 의한 敵對的 引受·合併(M&A) 허용, 외국인 투자업종의 개방폭 확대, 국내 부동산 취득 자유화, 투자절차 간소화 등 外國人投資環境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貿易信用 도입을 자유화함과 아울러 居住者 外貨借入制限과 企業 및 金融機關의 外貨資産 賣却制限을 완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융 기업 정부 노동시장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으로 金融改革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먼저 不實債權 누적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합병, 경영진 교체, 조직·인력 축소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資本金 擴充 및 不實債權 整理를 지원함으로써 金融機關 經營의 조기 正常化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法制面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預金者保護法, 銀行法,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등 금융관계 법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자산유동화제도,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제도 등 새로운 金融技法 도입,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 확충, 은행신탁 및 증권투자신탁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CP 및 회사채 보유한도제 시행 등을 통하여 金融市場의 基盤을 정비·확충하였다.

금후의 정책과제 및 통화신용정책 방향

1999년중 우리 경제는 1998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成長率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經常收支 黑字 및 物價安定 基調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雇傭事情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外換市場은 經常收支 黑字 지속, 外國人投資 증가 등으로 需給事情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며 金融市場에서는 신규 설비투자 부진 지속, 부채비율 축소 등으로 기업의 貸出需要는 크지 않을 것이나 앞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資金需要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1999년중 우리 경제상황은 전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인 經濟의 構造的 脆弱性이 아직까지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데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不安要因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向後 經濟政策은 우리 경제가 危機狀況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安定成長軌道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經濟構造調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脆弱性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實物經濟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뒷받침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雇傭事情 악화가 사회불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外換市場의 安定基盤을 한층 강화하여 외환위기의 재발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선진국형의 物價安定基盤을 확고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韓國銀行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99년도 물가안정목표를 연평균 消費者物價 上昇率 기준 3±1%로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實物經濟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通貨信用政策을 운용할 계획이다.

通貨는 需要面에서 物價上昇壓力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중 M3 增加率 목표는 경제성장률, 물가전망, 통화유통속도의 예상 하락률 등을 고려하여 13 14%로 설정하였으며 분기별로는 연간목표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金利는 實物經濟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분간 콜금리의 下向安定基調를 견지하되 향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자금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金利의

資金需給調節機能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中小企業 및 輸出企業에 대한 자금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심화될 경우 韓國銀行 總額貸出限度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中小企業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한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정착되는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면 通貨信用政策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本源通貨 공급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正統的 通貨政策手段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外國換去來法이 시행되는 1999년 4월 이후에는 外資流出入 규모가 확대되면서 통화 · 금리 · 환율간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지고 그 변동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通貨-金利-換率의 연계적 운용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인플레이션 압력지표 개발 및 예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物價安定目標制의 실효성 있는 운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